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청춘길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8일(일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안**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도서명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p> <p>주요 활동 : 독후감 및 마인드맵</p> <p>1.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p> <p>이** : 기존에는 식량 부족 문제를 단순하게 지구에 인구가 먹을 식량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지구에는 102억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동시에 그렇다면 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기도 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육류에 많은 곡식이 들어간다. 선진국에서는 과할 정도로 육류를 소비하고 있었고 이는 곧 누군가의 식량을 뺏어가는 행위가 되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난민, 기아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위기의 국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기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 개발 협력이 필수적이다.</p> <p>안** : 유럽, 백인 우월주의가 맬서스의 인구이론과 관련된 신화와 결탁하면서 '기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부여했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기아'의 발생은 인구 수의 과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아의 문제가 훨씬 사회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맬서스의 이론과 같은 경우는 기아 발생에 대한 정당성만을 부여할 뿐이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배제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이론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었던 유럽, 백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의 근간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p> <p>김** :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말리아 내전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소말리아 내전이 그저 개인의 분열로 나타난 전쟁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말리아는 대중</p>							

매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큰 전쟁이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아 전쟁은 서구열강의 영토전쟁으로 인해 일어났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고 이러한 생각으로 수도(서구 국가)를 위해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이용했다. 그리고 세계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프리카 영토를 갈라놓았다. 이 점은 서구 열강에 식민지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였다.

심** : 여기서의 소가 기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예시를 통해 서술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나는 책을 읽기 전까지 소와 같은 가축 산업들이 환경 오염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소를 키우는 등의 가축 산업들은 기아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식량들을 단지 사람들의 기호나 기업들의 이익을 위하여만 소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태들을 막을 수 있을까란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이** :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이슈를 알지 못하더라도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기아, 난민을 소개하는 책이 아닌 기아, 난민 문제를 국가 간의 이해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아, 난민 문제를 돕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국제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 개발협력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안** : 나는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책에서 저자는 '금기시되는 기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이 대목이 학생들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금기시되는 기아란, 학교에서 기아를 다루는 과목이나 수업이 적어 기아에 대한 무지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기아 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깊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적다. 별도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필자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특강이나 사회 시간에 교과서 한 쪽에서 본 글이 아니고서야 기아에 대한 문제를 접하기도, 또 고민해보기도 어려웠던 것 같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기아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만큼, 현대 사회 학생들이 본인의 무지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 :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그저 낯선 이의 사연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에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만 해!"라고 말한 들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한 추천이 조심스러웠다. 내가 좋은 마음과 의미로 추천을 한다고 해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사람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경제학에서는 기아문제에 대한 고민은 사치제라고 말한다.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부터 충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 : 기아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이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기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기아가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아가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에 관해서도 아주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3. 이 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가아, 난민 문제는 무거운 주제라고만 생각했었다. 책을 읽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은 후 무관심해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2007년에 출간되어 최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현재 기아, 난민 문제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궁금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개발국가는 생명과 직결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였다.

안** : 좋은 점은 기아에 대한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실제로 들었던 기아 관련 수업에서는 대다수 기아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서사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이는 기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단순하게 한 아이에 대한 모금이나 경제적 지원은 당장 그 아이의 어려운 삶을 개선해주는 것에는 충분한 도움이 될지언정, 거듭해서 발생하는 기아들의 어려운 삶을 보장해주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문제 제기가 뚜렷한 것에 비해 해결책에 대한 예시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점이다. 이 점은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과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다. 문제 제기는 기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줬지만, 결론적으로 이 해석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언급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남아 아쉬웠었다.

김** : 좋은 점은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해 준다는 점이 좋았다. 그저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보편적이고 단편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좋았다. 이러한 방식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책에 빠져들게 만들고 생각의 깊이를 넓혀준다. 아쉬운 점은 해결방법에 부족하다. 세계의 굶주린 절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책의 내용은 개인으로 하여금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이 소에게 이용된다고 해서 내가 채식을 하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전달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움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는 점이 느껴졌다.

심** :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한 서술들은 현재 기아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너무 좋았다. 그리고 화자가 아이를 대상으로 기아에 대해 설명해주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기아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기아의 문제에 대해 너무 거시적인 방면에 대해서만 서술해서 개인인 나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혼란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무력감이 들었다.

4.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or 책 내용과 관련 있는 나의 경험 / 나의 이야기

이** : 그동안 TV 에서 기아에게 후원을 하라는 광고를 보면 가볍게 스킵하고 넘겼었다. 우리는 현재 물이 부족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아와 난민 제가 크게 와닿지 않았었다. 그러나 책을 읽은 이후에 후원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고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학과 학우들과 신자유주의, 자연도태설의 이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안** : 더 이상 기아의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할 때 기아 현상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아가 발생하는 배경 중에서 경제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들은 기득권 층의 곡물 및 자원에 대한 투기 거래 현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기도 하며, 정치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들은 타 국가의 식민 지배 아래 희생당한 인물들이다. 하지만 권력을 지닌 국가들은 기아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기'식 지원에서 제공한다. 나는 이러한 점들을 보면서 IMF 현상이 함께 생각났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한국의 경제 주체가 본국을 떠나 점차 IMF 혹은 미국의 자본구조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 기아문제 또한 결국 자립할 수 없도록 극한의 상황을 몰고 간 타국에 의해 피해입은 개개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본 책이 단순히 기아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것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기아 문제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김** : 책을 읽으면서 중 고등학교 때 하던 봉사활동이 생각났다. 그것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 기아를 체험해보는 봉사였다. 하루 굶은 것 치고는 봉사시간을 많이 주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아를 경험해 보면서 그들을 공감하라는 의미겠지만 그것이 과연 실질적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도 봉사활동과 비슷한 맥락 같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세계의 식량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경제적 해결만 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해결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열강의 지배의식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심** : 기아는 국가나 기업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지만 현재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성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아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식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더 방치한다면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인드맵 활동

2020년 11월 8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청춘길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14일(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안**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도서명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p> <p>주요 활동 : 토론</p> <p>발제문</p> <p>1) 책 소개</p> <p>저자 장 지글리는 제네바 대학 교수와 같은 대학 부속 제 3세계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강의했고, 1999년까지 스위스 연방의회의원(사회당)을 지냈다. 실증적인 사회학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인도적인 관점에서 빈곤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대한 글을 발표한 저명한 기아문제 연구자이다. 2000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p> <p>이 책은 세계 기아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그러한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물질과 자원이 편향된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는 어린이 무덤, 상카라의 비극(부르키나파소), 환경 난민 등의 이야기들이 오간다.</p> <p>2) 토론거리</p> <p>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단순히 '기아'에 국한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기아 문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아의 미시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의 시간을 주기도 한다. 해당 책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지난 시간에도 많은 주제들이 나왔었다. 죽음과 인권, 식량과 권력,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문제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한다.</p> <p>먼저, 책의 내용이 기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다. 책에서는 기아 혹은 난민에 대한 원조나 국제적 지원에 대해</p>							

강력하게 어필하면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을 해야 하는 국가에는 선진국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난민, 기아와 같은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은 원조를 책임져야 할까? 또한, 선진국의 도의적 책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걸까? 그동안의 선진국의 원조는 원조라는 명목하에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힘이 약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필히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이익과 손해의 개념을 떠나 도덕적으로 그들을 도울 의무를 선진국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일부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아 문제와 관련하여 맬서스의 인구이론과 연결된 자연도태설이 나온다. 서구 백인우월주의 사상과도 연결되는데, 자연도태설이란 다윈이 주장한 이론으로 생존경쟁에서 환경에 적응한 것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기아는 생존경쟁에서 밀려난 존재들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맬서스의 인구이론을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러한 기아들은 인구가 탄생하는 만큼의 인구 감소의 축이 되므로, 인구의 비율을 적정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기아의 자연도태설은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또한 맬서스의 인구이론은 기아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본가들은 '욕망' 혹은 욕심이라는 가치 아래 피지배 계급들의 수많은 자원을 착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자본가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 함에 있다. 이러한 관계속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책에서는 기아, 난민 문제를 언급하면서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의 개혁이 필요한 것일까? 만약 개혁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토론 주제

난민, 기아와 같은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은 원조를 책임져야 할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 선진국의 책임이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선진국들은 난민, 기아와 같은 문제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무기 투기 현상과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하여 저개발 국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전세계의 옥수수 4분의 1인 부유한 나라의 소 먹이가 된다고 한

다. 일정 부분에 대한 육류 소비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도하게 육류를 소비하고 낭비되고 있다면 선진국들의 기아, 난민 문제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선진국들이 식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선진국은 저개발 국가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 원조를 책임져야 한다. 무조건으로 모든 선진국의 책임성을 따지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적어도 기아 발생의 원인에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무리한 투기 현상 혹은 삼림파괴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이 난민과 기아이기 때문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아나 난민이 스스로 본인의 삶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적 구조의 확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시민 단체 혹은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 :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선진국으로 인해서 난민, 기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주로 유럽열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유럽 열강들이 성장한 이유는 근대시대 때 자신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을 수탈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처로 역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열강이 아니더라도 저임금 비인간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자원을 선진국이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를 책임져야 한다.

심** : 모든 선진국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과거 제국주의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배했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나라의 자원들을 약탈한 후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그 자원들이 뺏겨서 현재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도의적 책임을 통해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일부 제한하거나 제제할 수 있을까?

이** :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선진국의 책임은 의무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자유 경제에 그 누구도 '제제'할 수 없는 일이다. 기아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와 선진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이기에 경제 제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무언인가가 등장한다 해도 그것을 동의할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하여 반발을 삼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제재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아,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안겨다 줄 순 없다.

안** : 경제활동의 '제한'과 '제재'로 해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아 문제의 해결은 선진국의 책임이 있는 만큼,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는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제재하게 될 경우, 난민과 기아 문제에 있어 경제적 원조나 지원이 가능한 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선진국의 경제활동 제한과 제재, 그리고 자유 사이의 딜레마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었는데,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제한과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아 문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좁게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부터 넓게는 환경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기아 문제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다층 다면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이는 선진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넘어, 실제로 기아나 난민이 나오는 국가에서도 책임져야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국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장과 공론장의 발전이 필요하다.

김** : 기아 문제의 해결을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일부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원 공급처로 사용되는 제 3세계를 위해 자원 수입을 중단할 것인가 그것은 제3세계나 선진국이나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일부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으로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 :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이를 제재할만한 기구나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평화와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UN같은 세계적 기구들은 선진국들의 기부금이나 투자금을 통해 행정을 유지하거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준다. 만약 선진국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세계적인 기구들이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을 제한 혹은 제재한다면 이에 반발한 몇몇 선진국들이 투자 혹은 기부를 끊을 것이고 이는 세계적 기구들이 행정과 보호를 할 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다고 개발도상국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을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데 선

진국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에라도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우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보복이 무섭기 때문에 설불리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에 제한과 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아의 자연도태설은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이** : 자연도태설은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으로 자연도태에 의해 생물이 진화한다는 학설이다. 쉽게 말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이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아,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다. 또한 사회 구조적, 자연적으로 다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에 따르면 기아, 난민 문제는 단순히 자연도태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기아 난민, 문제는 선진국과 국가의 기득권층 개입으로 인하여 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 : 필연적으로 볼 수 없다. 높아지는 인구 밀도를 기근이 조절한다는 이론의 의미를 떠나서 기아를 '자연에서 도태된 존재'로 해석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 도태된다는 의미는 집단에 있어 우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優)'에 해당하는 집단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에 의해 지배를 당했던 국가는 '열(劣)'한 존재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태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다. 도리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기득권 층에서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당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본 토론 주제에서는 자연도태설에 대한 이론적 오류에 대한 검토를 논했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필연적이지 않을뿐더러 우연이라 하기에 본 이론은 기득권의 왜곡된 해석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러한 이론의 정립은 기아와 난민을 사회로부의 도태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다.

김** : 기아의 자연도태설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자원의 유무는 당연히 사람의 능력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 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바는 기아문제를 겪는 국가 또는 개인의 문제는 자원의 유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이니 내버려 두어도 된다. 라는 주장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도 그렇다. 자연적으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제적 인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심** : 기아는 자연도태설에 나타난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기아는 인류의 이기적인 욕심이 만들어 낸 악의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아 국가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이를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들에게 주는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같이 어려

운 시점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기아 문제를 모른 척하는 독재 집단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기업과 집단들이 기아의 문제들의 다양한 방해나 행동으로 인해 기아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아는 절대로 자연도태설에 근거한 필연적인 문제점이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을까?

이** : 선진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기아, 난민 문제를 국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의 정의는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이다. 기아, 난민 문제는 선진국의 어떤 행태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인 책임은 없지만, We Are The World를 외치고 있는 만큼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안** : 신자유주의 국가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저자는 이미 세계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성찰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결국 기아나 난민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바라는 국가에서조차, 신자유주의적 사고 아래 각자의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나는 근년간 이데올로기를 접하면서 이런 사고를 해보지 못했다. '사람은 왜 욕심이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적은 있지만, 생각의 발전이 여기서 그쳐서 많이 갑갑했었는데, 저자의 이러한 해석은 나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기서는 '국가'로 국한하여 책임성을 논했지만, 이미 만연에 퍼져있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무서움은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만들어나가는데 바탕이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해 성찰해야 하는 것 같다. 표면적인 자유주의 구조를 떠나서 어떤 사고와 행동양식이 자유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나가는지 말이다.

김** : 신자유주의는 기아, 난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1번 토론주제의 근거와 동일하게 기아, 난민 문제는 선진국에 큰 책임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 활동을 중시한다. 선진국은 시장의 자유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아, 난민 국가에 적극적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심** : 나는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기아와 난민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내 기업이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어느 정도 눈감아준다. 하지만 이는 곧 과도한 경쟁과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만들었고 이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배제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충분히 기아와 난민 문제를 인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여 많

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후에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화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 핏포를 받아 더 기아가 가속화 되는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기아와 난민 문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11월 14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청춘길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2일(일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안**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도서명 : 파놉티콘</p> <p>주요 활동 : 독후감 및 마인드맵</p> <p>1. 이 책을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p> <p>이** :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파놉 티콘의 모형이 나온 부분이다. 파놉티콘은 동근모형인 감옥 한 가운데 감시자가있다. 감시자는 수감자의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지만 수감자는 늘 감시자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파놉티콘은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수감자를 감사할 수 있는 건축 구조를 가졌다. 현재는 기술이 발달하여 곳곳에 CCTV가 위치해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감자들에게 많은 인력과 기술을 소비할 수 없었기에 감시를 내면화할 수 있는 파놉티콘의 구조는 흥미로웠다.</p> <p>안** : “인간이 신뢰를 보장받으면 받을수록 신뢰를 얻을 만한 일에 노력하는 데 소홀해진다는 것 때문... (중략) 관리의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투명함이다.” 벤담과 같이 오래된 고전서적을 읽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을 때가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본인 삶과의 공통점을 찾을 때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사귀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왜 현대 사회에는 ‘친해지면 익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고 있지는 않았던 것인지 성찰하게 되었다. 특히 ‘신뢰’적인 면에서 말이다.</p> <p>파놉티콘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감옥에 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결국 죄수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금전적 동기 없이 신뢰를 지속할 수 있는가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신뢰는 시간상 유한한 가치는 아닐까.</p> <p>김** : 인상 깊은 구절은 전자 파놉티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우리</p>							

는 감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왜 파놉티콘 세계를 받아드리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커다란 파놉티콘을 사랑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감시받으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담의 파놉티콘과 달리 현재의 파놉티콘은 중앙이 모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맥락에 따라 누구든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심** : 예전에 감옥은 단지 재판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잠시 감금해두기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에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장소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옛날의 처벌들은 폭력적인 경우가 상당수가 많았는데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처벌을 없애고 비록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둘씩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2.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이** : 사회학에 관심있는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파놉티콘은 단순히 감옥을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다. 파놉티콘은 중앙탑에서 감시자들은 언제나 수감자들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수감자들은 감시탑에 감시자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파놉티콘은 감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사회에서는 CCTV나 스마트폰이 파놉티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 또한 누군가의 감시 체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파놉티콘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안** : 나는 처음 이 책을 읽고 노동자가 생각났다. 나는 파놉티콘이 단순히 감옥의 기능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또한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실제로 푸코에 따르면 사회가 이런 구조를 띄기도 한다. 나는 감시자와 감시대상자로 집단을 구분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실제 사회의 '감시자'에 자본가가 있고, '감시대상자'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했었다.

나는 사회에서 자본가의 위치보다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양식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살지는 않았었는지를 고찰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 자신의 고유 영역에 대한 침범과도 연관성이 짙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을 지닌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김** :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자유주의 국가인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을 간섭해? 라는 논리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유를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사회체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회가 규정짓는 맥락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는 허락되었다가 언젠는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심** : 이 책은 범죄자와 인권의 관계성, 그리고 감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범죄자들을 직접 만나고 통솔하며 감시를 해야만 하는 교도관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감시 행위의 본질을 깨닫고 비록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지만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시 부분적인 면모에서는 신파놉티콘 세계를 살아가야만 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들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전자 감시가 일상화되었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깨워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이 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 : 좋았던 점은 적은분량에도 불구하고 파놉티콘을 핵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였다. 벤담의 파놉티콘은 감옥에 한정되어 있지만, 현대의 파놉티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파놉티콘은 큰 의의를 주었다. 또한 파놉티콘을 적용한 감옥의 등장으로 수감자를 벌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재사회화 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새로웠다. 파놉티콘 구조를 설명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파놉티콘은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해를 도왔다. 아쉬운 점은 처음부분에 건축적인 설명이 나온다.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파놉티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로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이상 책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 :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파놉티콘에 대한 도면이 포함될 정도로 건축에 대한 사실이나 구조적인 면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규정,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던 점이다. 이는 추후 토론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이러한 규정이나 기반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있었다는 점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간의 행동양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놉티콘의 설계 이유에 대한 배경이 들어가있어, 벤담의 관점에서는 ‘파놉티콘’이 유토피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되었던 책이었다.

아쉬운 점은 파놉티콘에 대한 해석이 아무래도 저자가 ‘벤담’이다 보니 벤담의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이 크게 강조된 점이다. 나는 뒤에서 푸코가 새롭게 제시한 근대 권력의 장치 해석이 훨씬 마음에 달았던 것 같다. 단순히 감시자-수감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시각적인 봄-보임의 행위를 시작으로 규율을 내면화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권력’으로 해석한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파놉티콘에 대한 사회적 해석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깊게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과 동시에 사회학과 필독서인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도서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 이 책의 좋은 점은 파놉티콘을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파놉티콘 체계에 관해서 배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놉티콘을 너무 일방적으로 얹게 배웠다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파놉티콘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에 내용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만 보면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뒷부분에서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을 좀만 요약한다면 더 재미있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심** : 이 책의 좋은 점은 파놉티콘이라는 구조물이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지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파놉티콘의 구조가 무엇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구조가 현실에 활용되었을 때 과연 부작용은 없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술되지 않았고 아예 부작용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다.

4.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이** : 파놉티콘의 감시체제가 감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와 병원, 군대에서도 파놉티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되었다. 현재 CCTV라는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을 감시할 수 있지만 학교와 병원, 군대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의 감시보다는 파놉티콘의 원리를 적용한다. 또한 책에 벤담에 대한 내용도 서술되어 있는데 벤담은 파놉티콘의 원리가 공리주의자로서 감옥, 병원,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용되어야 할 모델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안** : 아무래도 벤담의 이론이나 설명들은 고등학생 때 '생활과 윤리'과목에서 배웠던 공리주의와 함께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았지만, 이를 해석하는 푸코의 접근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특히 '규율의 내면화'라는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요소를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임과 동시에 정치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점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에 대한 가치도 완성적이고 뛰어나서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패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런 생각이 푸코와 같은 새로운 해석의 열쇠로 작용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세상 어떠한 이론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실패'한 이론이 주는 새로운 사고와 도전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김** : 새롭게 알게 된 점은 현대사회에서 파놉티콘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파놉티콘은 전자 파놉티콘 혹은 정보 파놉티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놉티콘 체계를 생산한 즉 감시받지 않는 사람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결국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개인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 파놉티콘은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범죄자들의 인권을 어떻게든 보장해주려는 구조물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파놉티콘이라는 구조물은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구조물인 동시에 이를 권력층들이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는 부정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파놉티콘은 기획은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세워 놓은 어느 정도의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마인드맵 활동

2020년 11월 22일

참가자대표 : 이**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청춘길일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0년 11월 28일(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안**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도서명 : 파놉티콘</p> <p>주요 활동 : 토론</p> <p>발제문</p> <p>파놉티콘 설명</p> <p>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1791년에 죄수를 교화할 수 있는 시설인 원형감옥 파놉티콘을 만들었다. 그 구조는 파놉티콘 바깥쪽으로 원주를 따라서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이 있다. 이 중 죄수의 방은 항상 밝게 유지되고 중앙의 감시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중앙의 감시 공간에 있는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반면에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벤담의 생각을 받아드리지 않았고 1970년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출간하면서 주목받게 된다. 푸코는 근대 이전의 ‘스펙터클의 사회’와 근대 이후의 ‘규율 사회’를 구별했다. 스펙터클의 사회란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이고, 규율 사회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사회이다. 결국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군주권력에서 규율권력으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추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 책에서는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매커니즘과 이에 대한 푸코의 해석을 검토하였으나 추가로 샘플, 힘멜파브의 의견도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의 역학관계를 뒤집는 역감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자감시의 예로 이전 토론에서 나온 알바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설</p>							

치하여 감시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공공시설에 방문할 때 전화번호를 적는 것도 일종의 프라이버스 침해라고 생각한다. 역감시의 예로는 동네에 러브호텔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했던 일산의 주민들이 러브호텔에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1. 파놉티콘(감시)는 사회에 필요악인가?

캠빈 고스트립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프라이버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cctv를 통해 경로를 감시받고 있으며 현재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공공시설에 방문할 때 전화번호를 적어야만 한다. 우리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토론해보려고 한다.

2. 현대식 파놉티콘(cctv, 빅데이터 등)이 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한다.¹⁾ 2019년 5월22일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개발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빅데이터로 인해 '잊힐 권리'가 침해되고 이는 다른 보건 의료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소한 병에 기록이 빅데이터로 저장된다면 병이 완치되더라도 보험 가입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빅데이터의 발달이 의료 영리화를 가져와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보건 의료 빅데이터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병원, 제약사, 보험사 등에 공개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3. 현대 사회의 감시자와 감시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정부, 사법기관, 기업, 언론 등에 의한 개개인의 생활과 개인 정보의 침해로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권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는 은밀하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침해받고 있다.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은 파놉티콘의 간수 뿐이다.

토론 주제

1. 파놉티콘(감시)는 사회에 필요악인가?

이** : 필요악의 사전적 정의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이다.

감시는 듣기만해도 숨이 막히는 단어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감시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피해가 갈지라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인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제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적 이익에서만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사적인 이익에도 사용되고 있어 개인 정보침해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도 윤리,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윤리와 법만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었다면 감시까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감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안** : 나는 처음에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범죄 교화와 예방을 위해서 '감옥'이라는 구조는 정당화되지만, 그 감옥이라는 체재에 꼭 '감시'라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는가에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인간은 신뢰를 얻은 이후로 그 신뢰를 깨는 존재로서, 사회적 신임이나 약속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그것을 언제든 깰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내 논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구들의 해석을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싶었던 문제는 결국 감시를 '악(惡)'으로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감시가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일정수준 우리가 이로 인해 피해받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파놉티콘의 애초의 목적은 때리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죄수들을 억압하는 것을 벗어나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 감시도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 파놉티콘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의 전자 파놉티콘은 쓰는 사람의 행동을 중요시해야지 파놉티콘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파놉티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파놉티콘으로 얻는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감수 했다고 생각한다.

심** : 감시의 부정적인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존재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시의 본래 목적은 나라 혹은 내가 나를 보

호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조건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즉 감시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 되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감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감시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감시의 문제가 아닌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한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감시를 활용한 이들을 역으로 감시해야지 감시라는 존재라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감시는 필요악이 아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현대식 파놉티콘(cctv,빅데이터 등)이 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이** : 없다고 생각한다. 감시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감시를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식 파놉티콘이 침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보를 보호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있는 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느순간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는 우리의 신분이 되었고 신분이 인증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식 파놉티콘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CCTV 설치 및 운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최선일 것 같다. 현대식 파놉티콘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막을 순 없지만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안** : 인터넷 실명제나 디지털 장의사의 확대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막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나는 현대식 파놉티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와 '타자'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체란, 디지털 환경에서 이를 관리하고 구조를 알고 있는 존재이며, 타자는 이러한 환경에 그저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즉, 디지털 사회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인권침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고 느꼈다.

n번방이나 몰카와 같은 온라인 상의 불법촬영 카르텔도 현대식 파놉티콘의 이면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훨씬 디지털에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만큼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이런 인권 침해 주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과 함께 같이 가지고 가야할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 : 현대식 파놉티콘의 인권침해 사례로는 바이오 헬스가 있다. 작년 5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정부에서 추진하였는데 수술 예측 성공률 증가와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각광을 받지만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기업의 이득을 증진시킨다거나 시민의 건강이 모두에게 표시됨에 따라 정보 악용문제가 있다. 이를 막을 방법은 미시적으로 본다면 시민단체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법적 대책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말한 것처럼 바이오 헬스를 없애서 나오는 손해보다는 있어서 악용하는 손해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를 통한 안전망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심** : 현대식 파놉티콘의 인권침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을 밝히는 것에 관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나는 현재 아이디 생성 혹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하는 약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은 따로 빠져나와 개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게 한 후 동의를 받는 것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면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이다. 이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인권침해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현대 사회의 감시자와 감시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 감시자와 감시받는 대상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에 나온 근대적 파놉티콘은 감시자와 감시당하는 자(수감자)가 명확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든 감시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감시자 위치에 있는 것은 자본가라고 생각한다. <파놉티콘>의 책에서 감시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회원가입, 멤버십, 쿠폰을 비롯하여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기업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기업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이라고 생각한다.

안** : 처음에 이 토론 주제를 생각했던 이유는 벤담의 관점에서 나뉘어지는 감시자와 수감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코는 감시라는 행위 자체를 권력으로 명명했다. 감시는 감시 자체로서 영향력이 있다. 실제로 개인에게는 그 영향력이 규율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체제의 문제점은 '비가시성'이라는 것이다. 그 구조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미 규율이 내면화 된 상황에서는 그 규율을 깨고 가시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나는 처음에 감시자와 감시받는

대상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구조에서 생각했지만, 토론을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푸코의 입장까지 확대해서 생각하면,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이 감시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감시자가 되기도 하는, '역감시'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 또한 그렇게 감시를 받음과 동시에 감시를 하는 감시자는 무의식적인 규율이 잔존해 있다. 결국, 권력 구조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연유들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진짜 물어볼 것은 '왜 '감시'하는가'라는 행위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감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다.

김** : 감시자와 감시받는 대상은 우리 모두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보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감시와 감시받는 대상의 종류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중요해지고 AI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로봇의 반항이라기보다 그 뒤의 인간의 조종을 더 눈여겨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정보의 격차를 누가 쥐고 있는 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감시자 또한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시자와 감시받는 대상을 특정짓기 어렵다.

심** : 현대에 와서는 감시자와 감시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감시를 받는 이들도 요새는 반대로 감시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예로 들면 평소에 기업들은 자신의 건물에 CCTV나 계약서 혹은 컴퓨터 자료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직원들이 외부로 기술 혹은 기업의 분위기를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며 이에 대해 감시하는 중이다. 하지만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착취할 경우, 그 직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통해 이를 외부로 알리는 등의 기업의 부당한 감시를 역으로 감시하는 행태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시자와 감시대상자가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나뉘진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누구나 감시자 혹은 감시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20년 11월 28일

참가자대표 : 이**